

국내 음악 평생교육 연구의 의미구조 Semantic Structure of Lifelong Music Education Researches in Korea

서영호*

Youngho Suh

초록 이 연구는 국내 음악 평생교육에 대한 그간의 누적된 연구들의 의미구조를 살펴보고자 관련 논문을 취합하고 초록을 원천자료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평생교육의 주요 화두는 ‘노인 음악교육’이다. 둘째, 주요 음악 소재에서 악기는 피아노, 장르는 전통음악과 클래식이었으며 교육 방식은 개인보다 집단 형태가 많았다. 셋째, 관련 기관으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주요했으며 교수자보다 피교수자 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넷째, 음악 평생교육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언급이 일정 비중을 차지했다. 다섯째, 연구방법론과 관계된 단어 역시 한 무리를 이루었다. 다섯째, 연결망 분석에서는 노인과 음악교육의 강력한 연결중심성을 재확인 할 수 있었으며 CONCOR 분석을 통해 국내 음악 평생교육 연구에서 거론된 주된 담화 주제가 크게 ‘교육 행정’, ‘연구방법론과 심리적 효과’, ‘음악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전망’, ‘피교수자와 교육소재’로 수렴됨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성인, 노인, 음악교육, 평생교육, 연구 동향, 텍스트마이닝

Abstract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semantic structure of previously published studies on lifelong music education in Korea. And Text mining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bstracts of related papers as source data.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important topic was ‘music education for the elderly.’ Second, the main musical instrument was the piano, the genre was traditional music and classical music, and the form of education was more in group than individual. Third, the most important related institution was the university-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and most of the research focused on the tutees rather than the tutors. Fourth, mentions of the meaning and effects of lifelong music education occupy a certain proportion. Fifth, words related to research methodology also formed a certain group. Sixth, the network analysis confirmed the strong centrality of the elderly and music education. And CONCOR analysis showed that the main discourse topics discussed in this research subject largely converged into as follows.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search methodology and psychological effects’, ‘social meaning and prospects of the elderly music education’, and ‘tutees and educational materials’.

Key words: adult, the elderly, music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research trend, text mining

* Corresponding author, E-mail: traraa@naver.com

Adjunct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1732 Deogyong-daero Gilheung-gu Yongin-si Gyeonggi-do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24, Reviewed (Revised): 29 March (3 April) 2024, Accepted: 26 April 2024

© 2024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I. 서론

세계 10위권의 경제국 반열에 오른 한국은 최소한 그 물질적 삶의 여건에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한 보도(Choi, 2023)에 따르면 한국의 국력은 전 세계 85개국 중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보고될 정도로 한국인의 삶의 여건은 지난 반세기 전과 비교하면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한국인의 관심사는 삶의 질 문제 즉, 어떻게 더 ‘잘’ 사는가로 옮겨왔으며(Kwak & Chung, 2014; Yoon & Bae, 2009) 이러한 점은 지난 2000년 이래 유행했던 ‘웰빙(well-being)’이라는 용어의 부상과도 맞물려 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화생활을 비롯한 여가활동에의 지출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Lee, Han, & Shon, 2014; Park, 2022) 그 중 스포츠나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수요는 가장 중심이 된다. 특히 한국사회는 2000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65세를 넘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2017년에는 해당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올해나 내년인 2025년에는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여 20%를 넘기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Kim, 2024) 속에서 노인을 포함한 성인 세대의 이른바 평생교육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이다.

이 가운데 취미와 여가로서의 음악은 성인 문화예술 활동에서 중요한 영역을 이루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고 동시에 성인인구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 대상의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참여자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으며 음악교육 관련 기관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다(Chang, 2021). 이러한 성인 대상 음악교육은 개인 교습, 동호회, 사설 학원, 지방 자치 단체 부설 문화예술 교육기관, 대학 부설 문화예술 교육기관 등 다양한 현장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또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새로운 교육형태가 생겨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교육 등도 포함된다. 성인 음악교육에의 수요 증가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는 질과 양적인 측면 모두에서 음악교육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육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관련하여 정기 간행 국내 학술지 연구의 경우 여러 가지 맥락에서 상기의 의미를 갖는 2000년이라는 시점을 기점으로 그 첫 연구가 등장한 이래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약 50편의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취합된 49편의 연구를 통시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대에 총 2편으로 연평균 0.2편이던 관련 연구가 2010년대에는 총 33편, 연평균 3.3편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20년대에는 2023년까지의 4개년 동안 총 13편, 연평균 3.75편으로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관련 연구의 증가를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사회적 요구와 현황을 고려할 때 이제 국내 음악교육 연구에서 성인 음악교육은 하나의 독자적 영역으로 다루어질 만한 시기적 당위성과 누적된 성과를 확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연구는 2000년 이래 20여 년 동안 국내 ‘음악 평생교육’ 연구에서 다루어진 논의의 의미구조를 살피고자 하며 이를 텍스트마이닝 방법론을 활용하여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텍스트마이닝이라는 연구방법론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국내 성인 음악교육 연구의 주요 키워드는 무엇이며 이는 어떤 단어들로 표상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이 키워드들이 지시하고 있는 성인 음악교육 연구들의 담화 주제는 무엇이며 각각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 현황이나 경향에 대한 파악은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고 그 지형을 살피며 나아가 이후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전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는 다각도의 균형 잡힌 연구의 필요성과 새로운 문제의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 또 이를 바탕으로 타 학문분과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분야에 적용할 개방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Shin & Oh, 2019). 따라서 음악 평생교육 관련 연구의 전반적 조망을 다룬 연구가 아직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간의 논의에 대한 점검과 향후 논의를 위한 전망을 위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I. 이론적 배경

‘음악교육’이라는 대주제나 음악교육과 관련한 세부 주제적 관점에서 그간의 축적된 연구들을 메타적 관점에서 살핀 연구는 얼마간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Choi, 2000; Choi, 2011; Im, Paik, Min & Song, 2020; Jung & Seog, 2014; Kim, 2001; Kim, 2015; Kim, 2018; Kim, 2022; Kwag & Kwag, 2017; Park, 2011; Seog, 2004; Shin & Oh, 2019; Won, 2006). 이 중에서 일찍이 최은식(Choi, 2000)의 연구를 필두로 김미숙(Kim, 2001), 석문주(Seog, 2004), 정재은과 석문주(Jung & Seog, 2014) 등은 음악교육 전반에 관한 연구에 대해 시기별 연구량, 연구방법, 연구대상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한편 원영실(Won, 2006), 최진호(Choi, 2011), 신혜경(Shin, 2013) 등은 특정 학술지나 연구방법론에 기준을 둔 제한적 조건에서 더 미세한 영역의 연구를 선보였다. 특히 국내 다문화 음악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김성혜(Kim, 2020)의 연구는 음악교육의 특정 영역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시사점을 준다.

한편 상기의 연구들이 이른바 ‘내용분석’ 방법을 토대로 연구자 각자가 설정한 준거틀 내에서 논지를 전개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연구방법으로서 텍스트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김현미(Kim, 2015), 곽현규와 곽민석(Kwang & Kwag, 2017), 김화정(Kim, 2018)은 키워드를 활용한 네트워크 분석을, 신혜경과 오지향(Shin & Oh, 2019), 김지현(Kim, 2022), 김미숙과 이지영(Kim & Lee, 2023) 등은 네트워크분석에 LDA 모델링을 활용한 주제 추출을 함께 적용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을 동원한 이 연구는 각종 텍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한 이러한 연구들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를 국내 음악 평생교육 연구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III. 연구의 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먼저 이 글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내 음악 평생교육 연구’에서의 ‘평생교육’에 대한 조작적 규정이 필요하다. 기실 교육학에서 ‘평생교육’은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을 지칭하며 학교 교육과 사회교육을 동시에 포괄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목적상 필수 교육 과정을 포함한 학교 교육을 제외한 음악교육 현장을 살펴보고자 함에 이러한 음악교육을 제한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음악을 전공이나 직업 수단으로 다루지 않는 교육을 말하며, 생활용어로 이른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서의 음악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통상 ‘성인 음악교육’이라고 일컫는 영역을 다루고자 함이나 음악 교육학에서 이러한 형태의 음악교육을 ‘음악 평생교육’으로 통합하여 지칭하고 있음에 이 글에서도 이하 ‘음악 평생교육’으로 통칭한다.

따라서 이 연구가 구체적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기의 의미를 충족하는 연구로서 ‘한국의 음악 평생교육’을 다루고 있는 국내 정기 간행 학술논문들이다. 이의 취합을 위해 RISS와 KCI에서 ‘성인, 노인, 노년, 고령, 실버, 음악교육, 평생교육, 평생학습, 음악, 생활문화, 지역, 악기, 취미, 음악프로그램’ 등의 키워드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검색한 결과 중 학술대회 발표 글은 제외하고 정기 간행 학술지를 통해 공식 출간된 학술논문 총 49개를 수집하였다. 이 중 ‘악기’의 경우 음악 평생교육 관련하여 빈번히 다루어지고 있는 구체적 악기 명 몇 가지를 함께 활용하였다. 또 검색 결과 중 음악치료, 음악 동호회 활동을 주제로 한 논문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그 내용에 명백하게 음악교육에 관한 논의가 개입한다고 판단되는 일부는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즉 이러한 연구

들은 주로 심리학이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성인의 음악 생활을 다루는 것들이지만 그 내용에 음악교육, 즉 음악에 대한 교수와 학습의 과정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음악 교육 연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연구들을 말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로 삼는 것은 논문들의 초록이다. 그간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메타 연구에서 주제어(키워드)를 데이터로 삼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이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의 활용 의미를 온전히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텍스트마이닝은 단순히 정량적 정보를 근거로 분석하기보다 함께 출연한 단어들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분석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개별적인 단어의 단순열거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갖는 글의 최소단위’라는 의미에서의 ‘텍스트’일 때 텍스트마이닝의 장점이 더 살아날 수 있다. 즉 문장들로 구성되어 일정한 의미맥락을 갖는 ‘글’일 경우 그 기법의 활용이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문 초록을 분석자료로 삼았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분석방법으로 삼는다. 텍스트마이닝은 비정형의 텍스트 정보의 정형화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빈도, 패턴, 관계 등의 정보를 도출함으로써 텍스트의 이해를 도모하는 데이터 분석방법이다. 이는 비록 양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만 양적 논리가 모든 의미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어의 단순한 출현 빈도를 넘어 관계와 패턴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질적 통찰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Drieger, 2013) 메타 연구의 방법론으로 종종 활용되는 내용분석 방식의 연구가 연구자의 임의 준거에 의존해 범주화하는 방식이기에 연구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취약한(Hwang, 2020; Kim, 2022) 반면 텍스트마이닝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구조를 더 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마이닝의 세부 기법들인 TF, TF-IDF, N-gram, Semantic Network, CONCOR 분석의 결과를 활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텍스톰(Textom)을 데이터 전처리와 중심 분석 도구로 삼았다.

먼저 취합된 연구 초록 데이터를 텍스톰에서 EspressoK 분석기를 통해 형태소 분석을 거친 뒤 불용어 제거, 유사어 통일 등의 정제를 거쳐 TF, TF-IDF, N-gram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Semantic Network 분석과 CONCOR 분석의 시각화 활용을 위해서는 Unicet6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활용한다. 이상 5가지 세부 방법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TF 지표는 Term Frequency로 텍스트 내에서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를 의미한다. 가장 정량적이며 1차적인 분석지표라 할 수 있다. TF-IDF 지표는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를 의미하며 전체 텍스트에서 특정 단어가 빈번하게 출현하여 그 단어들

에 의해 전체 텍스트의 의미가 결정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발된 분석 기법이다. 출현 빈도는 낮더라도 중요한 의미와 위치를 갖는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순위권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는 원리다. 텍스트의 TF-IDF 분석은 문장에 사용된 모든 단어에 점수를 부여하는 알고리즘으로 특정 문서 내에서 단어의 빈도가 높고, 동시에 전체 문서들 중 그 단어를 포함한 문서가 적을수록 TF-IDF 값은 높아진다.

N-gram 지표는 단어 연관성 분석(Term Association Analysis) 기법으로 텍스트에 나타나는 N개 문자열의 연쇄적 출현을 파악한 것이다. TF 지표가 단순히 출현 빈도만을 알려준다면, N-gram은 인접한 단어들을 2개 이상으로 묶어 표현하는 기법으로 다빈도 출현 단어들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Kondrak, 2005).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텍스트의 N-gram 모델은 확률적 언어모형인 N-gram 알고리즘 중 2개의 연속된 단어 나 형태소 단위로 추출하여 분석한 바이그램 모형을 활용한다.

Semantic Network 분석은 관계를 갖는 각각의 노드(node) 사이의 연결을 통해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이로부터 해석을 도출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이다. 노드 간 연결을 링크(link)로 하여 네트워크화하였을 때 노드의 중심화, 노드 간의 연결 정도, 밀집 정도를 통해서 전체 텍스트에서 중요한 단어와 의미 연결을 파악한다(Freeman, 2002). 즉 특정 노드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을 수치화한 값을 토대로 하는 중심성 분석을 통해 구조적 관점에서 더 많은 영향력과 의미를 지닌 노드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노드는 네트워크에서 ‘연결 지점’을 의미하며 텍스트의 정제과정을 거쳐 추출한 단어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할 단위로서 연결망의 관점에서 지칭한 것이다.

CONCOR 분석(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 Analysis)은 전체 텍스트 단어를 노드로 보고 이들이 링크로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상관계수를 토대로 반복 수렴 과정을 거쳐 구조적 등위성이 유사한 구조의 노드가 군집을 이루도록 하는 분석이다(Kim, 2020). 구조적 등위의 위치에 있는 단어들의 블록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활용하며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반복적으로 처리하여 상관관계가 높은 노드들을 그룹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CONCOR 분석을 통해 텍스트가 품고 있는 주제들, 즉 텍스트가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담화 주제를 추출할 수 있다. 여기서 같은 군집 아래 모인 노드들은 곧 이들이 공통의 대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텍스트마이닝과 관련하여 텍스트에 잠재된 주제들을 추출하기 위해 LDA 토픽 모델링 분석도 종종 활용된다. LDA 토픽모델링이 단어들이 특정 주제에 속하는지를 빈도를 중심으로 파악하기에 더 정량적인 방법이라면 CONCOR 분석은 단어들의 연결 관계를 함께 반영한다는 점에서 도출 알고리즘의 차이가 있다. 이 연구의 경우 토픽 모델링 분석보다 CONCOR 분석 결과가 주제들의 수렴 결과를 더 유의미하게 보여주었기에 CONCOR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에서 전체 텍스트에서 TF-IDF 61개 노드를 선정하여 중요한 단어의 공출현 빈도 매트릭스를 구성한 뒤 각 노드 간의 연결 정도를 의미하는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값을 적용하였다. TF-IDF 61개 노드의 선정은 단어의 단순한 빈도보다 비중을 함께 고려한 TF-IDF 순위에서 상위 100개를 선정하여 군집화한 뒤 어떤 주제에도 속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범용적이거나 혹은 반대로 아무런 특색을 지니지 않는 단어, 그리고 노드의 크기가 매우 작은 단어를 제외하여 최종 61개로 구성하였다. 이후 이를 노드의 크기와 노드 간 연결선의 굵기에 반영하여 Unicit6를 통해 시각화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TF, TF-IDF, N-gram 분석

이 연구의 TF 지표에서는 출현 빈도 9회까지인 총 상위 57개 단어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TF 상위 57개 단어와 각 출현 빈도는 다음과 같다.¹⁾

<Table 1> TF

Rank	Word	Frequency	Rnak	Word	Frequency
1	elderly person	152	30	culture and arts	14
2	music education	116	31	lifelong education center	13
3	program	105	32	generation	13
4	adult	62	33	unification	12
5	learner	62	34	instrument	11
6	piano	54	35	continue	11
7	society	46	36	affiliated	11
8	class	38	37	living	11
9	development	29	38	statistics	11
10	participation	28	39	opportunity	10

1) TF, TF-IDF, N-gram 지표에서 출현 빈도가 동일한 단어들이 종종 등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공동 순위라 할 수 있으며 동일 빈도수 단어들 사이에 중요도의 위계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6위 ‘model’부터 57위 ‘score’까지 12개 단어는 모두 9회 출현의 동일 빈도를 기록하며 사실상 공동 순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분석결과와 서술 과정에서 개별 단어들을 언급함에 있어 해당 단어를 효율적으로 지시하기 위해(ex. 51위 ‘local’) 공동 순위로 표기하지 않고 공동 순위 내 임의적 순차 순위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지표의 해석에 있어서 최상위권이나 최하위권 등 순위의 극적인 차이를 제한한다면 근사한 순위권 내에서 미세한 순위의 위계 차이가 지표의 해석 결과에 큰 차이를 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후의 TF-IDF 지표와 N-gram 지표에서 각각 가중치 값과 빈도가 같은 단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Table 1> Continued

Rank	Word	Frequency	Rnak	Word	Frequency
11	lifelong education	27	40	hereafter	10
12	group	25	41	play	10
13	life	24	42	experiment	10
14	suggestion	24	43	present condition	10
15	activity	23	44	open	10
16	effect	20	45	individual	10
17	management	20	46	model	9
18	domestic	19	47	function	9
19	physical	18	48	connection	9
20	emotion	18	49	untact	9
21	quality	17	50	measure	9
22	improvement	17	51	local	9
23	direction	17	52	problem	9
24	singing	16	53	orchestra	9
25	present	16	54	satisfaction level	9
26	cognition	15	55	agency	9
27	university	15	56	ukulele	9
28	musical activities	15	57	score	9
29	traditional music	14			

TF-IDF 지표는 TF 선정 갯수와 동일하게 TF-IDF 가중치 상위 57개 단어를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본다. 가중치 값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TF-IDF 단어 상위 57개와 그 가중치 값은 다음과 같다.

<Table 2> Continued

Rank	Word	TF-IDF value	Rnak	Word	TF-IDF value
1	elderly person	105.36	30	life	26.37
2	piano	90.39	31	culture and arts	25.08
3	music education	71.12	32	improvement	26.05
4	adult	68.11	33	unification	24.95
5	class	55.99	34	living	24.88
6	learner	54.28	35	affiliated	24.88
7	program	49.35	36	present	23.57

<Table 2> TF-IDF

Rank	Word	TF-IDF value	Rnak	Word	TF-IDF value
8	activity	44.28	37	nonofficial certificate	23.23
9	lifelong education	39.78	38	board game	23.23
10	group	39.22	39	open	22.62
11	society	35.89	40	problem	22.36
12	orchestra	34.84	41	satisfaction level	22.36
13	traditional music	34.79	42	model	22.36
14	participation	32.57	43	quality	22.21
15	emotion	32.25	44	example	22.18
16	development	31.86	45	domestic	22.10
17	university	31.19	46	instrument	21.50
18	singing	28.67	47	suggestion	21.01
19	ukulele	28.60	48	play	20.79
20	score	28.60	49	untact	20.36
21	physical	28.24	50	connection	20.36
22	effect	27.73	51	direction	19.77
23	management	27.73	52	stress	19.41
24	experiment	27.73	53	psychological	19.41
25	statistics	27.33	54	certification	19.36
26	generation	27.03	55	(service) quality ²⁾	19.36
27	lifelong education center	27.03	56	classic	19.36
28	musical activities	26.88	57	andragogy	19.36
29	cognition	26.88			

N-gram 지표는 동시 출현 빈도 5회 순위까지 선정한 상위 33개를 제시하며 각 순위를 이루는 단어의 조합과 빈도는 다음과 같다.

2) 이때의 단어 ‘quality’는 ‘교육서비스 품질’이라는 맥락에서 등장한 경우이다. ‘품질’의 뉘앙스에 적절히 해당하는 별도의 영어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43위의 ‘quality’와 구별 짓기 위해 ‘(service) quality’로 표기하였다.

<Table 3> N-gram

Rank	Word 1	Word 2	Frequency
1	music education	program	53
2	elderly person	music education	27
3	adult	learner	17
4	elderly person	society	13
5	adult	piano	12
6	university	affiliated	11
7	affiliated	lifelong education center	11
8	life	quality	9
9	direction	suggestion	9
10	program	development	9
11	program	adult	8
12	domestic	adult	7
13	experiment	group	7
14	lifelong education center	music education	7
15	program	management	7
16	elderly person	living	6
17	program	participation	6
18	elderly person	piano	6
19	singing	program	5
20	elderly person	physical	5
21	elderly person	life	5
22	quality	improvement	5
23	adult	orchestra	5
24	group	piano	5
25	piano	class	5
26	culture and arts	music education	5
27	future	elderly person	5
28	elderly person	learner	5
29	living	stress	5
30	society	well-being	5
31	classic	music education	5
32	piano	learner	5
33	education service	quality	5

다음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이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주요 함의를 5가지로 요약화하여 논의하였다.

1) 주요 화두로서의 ‘노인’

TF와 TF-IDF 지표 공히 가장 비중 있는 지위를 점한 단어는 ‘노인’이다. 두 지표에서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한 ‘성인’이라는 단어 역시 노인세대를 포함하지만 ‘노인’³⁾이라는 특정된 단어가 두 지표 모두에서 1위에 차지했다. 이는 물론 관련 연구가 성인 중에서도 노인세대의 음악교육과 관련하여 활발함을 알려준다. 이러한 점은 특히 N-gram 지표에서 노인과 관련한 동시 출현 단어조합이 순위권 내에 빈번히 등장하는 것으로 방증되는데 ‘노인-음악교육’(2위), ‘노인-사회’(4위), ‘노인-피아노’(18위), ‘노인-신체’(20위), ‘노인-삶’(21위), ‘미래-노인’(27위), ‘노인-학습자’(28위)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세 지표 모두에서 ‘노인’이라는 키워드는 국내 음악 평생교육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성인’과 ‘노인’ 이외에 다른 인구통계학적 접근을 의미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는 노인을 제외한 청년, 중년 등 다른 세대와 관련해서는 세분화된 연구가 아직 부재하며 이들이 모두 성인이라는 포괄적 의미범주에서 함께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소재와 방식

음악 평생교육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 소재와 관련한 단어들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가시적인 소재는 악기와 음악 장르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악기와 관련해서는 ‘악기’(TF 34위, TF-IDF 46위), ‘피아노’(TF 6위, TF-IDF 2위), ‘노래’⁴⁾ (TF 24위, TF-IDF 18위), ‘오케스트라’(TF-53위, TF-IDF 12위)가 등장함을 볼 수 있다. 한편 ‘우쿨렐레’(TF-IDF 19위)와 악기 이외의 소재라 할 ‘보드게임’(TF-IDF 38위)은 TF 지표에서 순위권 밖이었지만 TF-IDF 지표에서 순위권 안에 진입함을 보여 상대적 출현 빈도는 낮지만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어 ‘피아노’는 최상위권에 나타남으로써 가장 빈번하고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N-gram 지표에서 ‘성인-피아노’(5위), ‘노인-피아노’(18위), ‘집단-피아노’(24위), ‘피아노-수업’(25위), ‘피아노-학습자’(32위) 등 다수의 순위권 출현이 이를 뒷받침된다.

또 다른 관점에서 교육 소재라 할 수 있는 음악 장르로는 ‘전통음악’⁵⁾(TF 29위, TF-IDF

3) 정제과정에서 고령자, 노령자, 실버 등의 단어를 노인으로 통일 정제하였다. 한편 과거와 다른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적극적 노인을 의미하는 뉴실버라는 단어는 그 별도의 의미 포착을 위해 그대로 남겨두었다. 뉴실버(TF 122위, TF-IDF 98위 5회)

4) 이때 노래는 가창을 의미하므로 ‘singing’으로 표기하였다.

13위)과 ‘클래식’(TF-IDF 56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성인-오케스트라’(23위), ‘클래식-음악교육’(31위) 등 N-gram 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단 ‘노래’(TF 24위, TF-IDF 18위)와 피아노를 통한 음악교육은 대중가요 장르를 활용하여서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육 소재로서의 대중음악 장르 활용 역시 짐작해볼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 정황을 드러내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한편 교육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비대면’(TF 49, TF-IDF 49위)과 ‘집단’(TF 12위, TF-IDF 10위), ‘개인’(TF 45위) 등의 단어를 주목한다. ‘비대면’은 최근 몇 년 증가한 비대면(주로 온라인) 방식 교육의 언급을 의미한다.⁶⁾ ‘집단’은 교육 방식에서 피교수자가 다수로 이루어진 집단 교육 형태의 언급을 암시한다. 다만 이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N-gram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13위), ‘집단-피아노’(24위) 등으로 나타나는 바 특정 방법론이나 악기와 관련한 연구에서 등장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 교습을 추정할 수 있는 ‘개인’은 각각 TF 45위, TF-IDF 68위(순위권 밖)에 머물렀으며 보다 직접적인 ‘개인레슨’이나 ‘개인지도’ 등의 단어는 역시 제시 순위권에 훨씬 못 미친 순위권에 등장함으로써 연구대상으로서는 주로 ‘일 대 다수’의 형태로 진행되는 음악교육 현상이 빈번하게 다루어짐을 알 수 있다.

3) 주체와 현장

교육 주체로서 기관과 교육 현장의 의미를 겸하고 있는 단어들로는 ‘대학’, ‘평생교육원’, ‘부설’ 등이 순위권에 올랐다. N-gram의 ‘대학-부설’(6위), ‘부설-평생교육원’(11위)은 대학 부설기관으로서 평생교육원이 음악 평생교육의 주요한 장임을 보여준다.⁷⁾ 아래 [그림 1]의 N-gram의 시각화에서는 이 두 쌍의 단어조합이 ‘평생교육원’을 거쳐 ‘음악교육’을 거점으로 다양한 의미로 연결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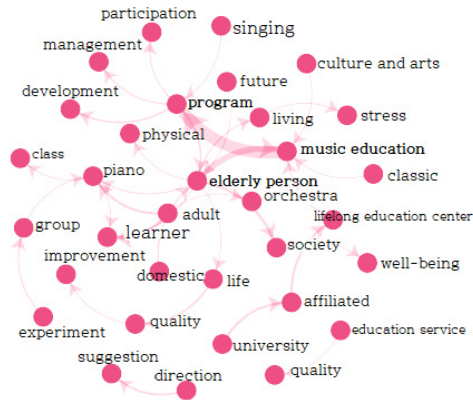
한편 이보다 더 직접적인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수자, 피교수자에 대한 언급에서는 피교수자와 관련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아 대다수의 연구가 피교수자, 즉 학습자 중심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앞서 다룬 ‘노인’, ‘성인’ 단어와 이외에 ‘학습자’(TF 5위, TF-IDF 6위)와 같은 직접적인 피교수자 지칭 단어, 그리고 ‘활동’(TF 15위, TF-IDF 8위), ‘참여’(TF 10위, TF-IDF 14위), ‘세대’(TF 32위, TF-IDF 26위) 등 피교수자와 연관될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가 역시 두 지표 모두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으로서 확인할 수 있다. N-gram에서는 ‘성인-학습자’(3위), ‘실험-집단’(13위), ‘프로그램-참여’(17

5) 전통민요, 국악 등의 단어를 전통음악으로 통일하였다. 전통음악의 경우 해외 다른 지역의 전통음악도 의미할 수 있으나 해당 문헌에서 모두 한국의 전통음악을 지칭함을 확인하였다.

6) 다만 전통적인 대면 수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면 수업’이라는 표기를 별도로 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대면’의 등장이 곧 비대면 수업 방식의 일반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순 없다.

7) 그 외 ‘복지관’(TF 80위), ‘주민센터’(TF 914위), ‘주간노인센터’(TF 915위) 등이 순위권 밖에 일부 등장하였다.

위), ‘노인-신체(20위)’, ‘노인-학습자’(28위), ‘피아노-학습자’(32위) 등으로 확인된다. 또 음악교육의 효과와 관련한 다수의 단어들도 피교수자에 대한 논의의 일부라 볼 수 있는데 이는 다음에서 함께 살펴본다.



[Figure 1] N-gram

4) 의미와 효과

음악 평생교육의 의미와 효과와 관련한 단어 역시 순위권에 다수 포착된다. 관련하여 가장 상위권에 등장하는 것은 단어 ‘사회’(TF 7위, TF-IDF 11위)와 ‘평생교육’⁸⁾(TF 11위, TF-IDF 9위)이며 이는 연구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인과 그들에 대한 음악교육이 개인적 차원은 물론 사회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루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음악 평생교육은 이른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종종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삶’(TF 13위, TF-IDF 30위), ‘활동’(TF 15위, TF-IDF 8위), ‘집단’(TF 12위, TF-IDF 10위), ‘세대’(TF 32위, TF-IDF 26위), ‘참여’(TF 10위, TF-IDF 14위) 등은 그 구체적 논의의 키워드로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교육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한 단어들 역시 순위권의 일정 부분을 이루고 있다. 물리적, 정신적 차원 모두를 아우르는 ‘효과’(TF 16위, TF-IDF 22위), ‘신체’(TF 19위, TF-IDF 21위), ‘정서’(TF 20위, TF-IDF 15위), ‘질’(TF 21위, TF-IDF 43위), ‘향상’(TF 22위, TF-IDF 32위), ‘만족도’(TF

8) ‘평생학습’은 정제과정에서 ‘평생교육’으로 통일하였다.

5) 연구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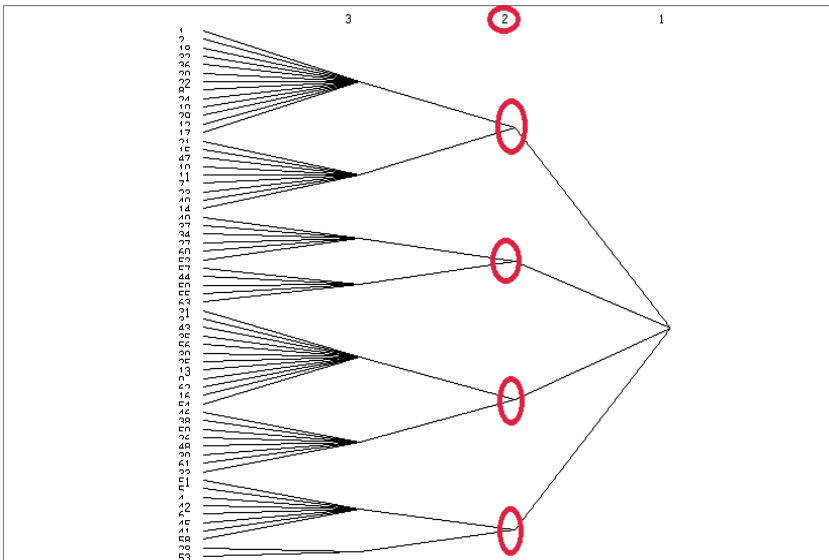
2. Semantic Network 분석

[Figure 2] Semantic Network

의미 연결망을 살펴보면 중심부에 ‘노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큰 노드를 구성하여 밀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세 단어가 다른 단어와 가장 많은 연결을 보이며 특히 노인과 음악교육의 연결선(tie)의 굵기는 이 두 단어 간의 밀접성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음악 평생교육 연구의 핵심 화두가 ‘노인 음악교육’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며 음악교육은 가장 다양한 단어와 강력한 연결을 보이고 있음도 확인된다. 한편 TF-IDF 지표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했던 ‘피아노’(3위)의 경우 그 순위에 비해 중심부에서 벗어나 있으며 그보다 하위였던 ‘사회’가 중심부에 근접함으로써 그 비중의 부각을 볼 수 있다.

3. CONCOR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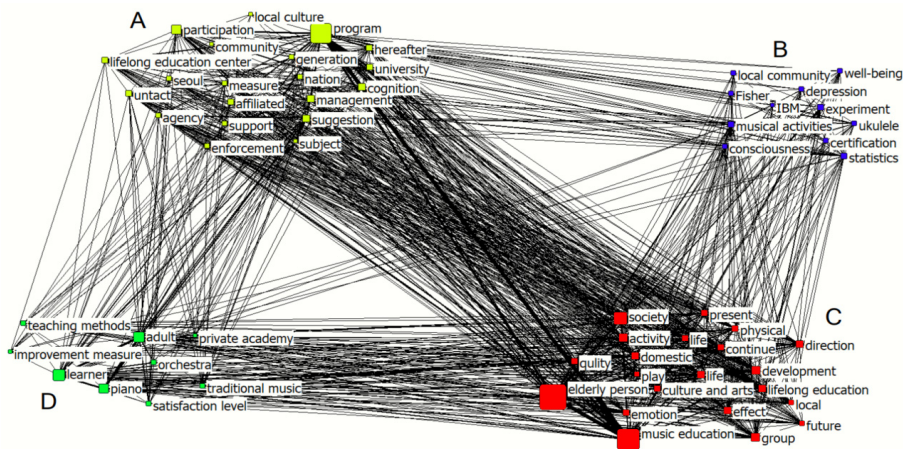
CONCOR 분석에서 텍스트가 함의하는 담화 주제를 몇 개의 군집으로 포착할지는 연구자가 설정할 수 있다. Unicot6 프로그램에서 CONCOR 알고리즘을 통하면 61개의 노드가 공통의 주제로 수렴되는 것을 단계별로 볼 수 있다. 이를 덴드로그램이라 하는데 이는 각 단어들이 이루는 군집의 응집 양상을 심급별로 시각화한 것이다. 아래 [Figure 3]에서 우로부터 1, 2, 3의 그룹 형성 층위는 노드들의 주제군 형성과 깊이를 보여준다. 이 연구의 TF-IDF 61개 덴드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Figure 3] Dendrogram

이 연구에서는 담화 주제 형성의 구체적 포착을 위해 덴드로그램의 2단계의 심급에서

이루는 4개의 군집으로 CONCOR 군집화를 설정하였다. Unicet6를 통해 시각화한 CONCOR 분석과 4개의 주제군집은 다음과 같다.



[Figure 4] CONCOR

CONCOR 분석에서는 군집을 이루는 핵심 노드를 취합하여 해당 군집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군집당 상위 10개⁹⁾를 통해 주제를 파악하였다. 아래는 각 군집의 핵심 노드와 이를 통해 규정한 군집의 주제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4> CONCOR

Group	A	B	C	D
Subject	Education administration	Research methodology and psychological effects	Social meaning and prospects of the elderly music education	Tutee and education material
Key Nodes	Program Cognition Participation Lifelong education-center Enforcement Suggestion Management University Nation Support	Musical activities Consciousness Statistics Experiment Fisher IBM Well-being Depression Certification Local community	Elderly person Music education Society Activity Continue Direction Group Lifelong education Culture and arts Development	Learner Adult Piano Orchestra Traditional-music Teaching- method Satisfaction-level Private academy Improvement-measure

9) 군집 D의 경우 총 노드가 9개이다.

군집 A는 ‘프로그램’, ‘인식’, ‘참여’, ‘평생교육원’, ‘시행’, ‘제시’, ‘운영’, ‘대학’, ‘국가’, ‘지원’ 등을 핵심 노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음악교육의 프로그램과 인적, 물적 자원이거나 조건 등과 관계된 단어를 아우르고 있으므로 ‘교육 행정’ 주제로 포괄된다.

군집 B는 ‘음악 활동’, ‘의식’, ‘통계’, ‘실험’, ‘Fisher’, ‘IBM’, ‘안녕감’, ‘우울증’, ‘검정’, ‘지역공동체’ 등을 핵심 노드로 한다. 통계, 실험을 비롯해 ‘Fisher’, ‘IBM’ 등은 특정 연구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그리고 ‘안녕감’, ‘우울증’, ‘의식’ 등은 음악교육의 심리적 효과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론과 심리적 효과’ 주제군이라 할 수 있다.

군집 C는 ‘노인’, ‘음악교육’, ‘사회’, ‘활동’, ‘지속’, ‘방향’, ‘집단’, ‘평생교육’, ‘문화예술’, ‘개발’ 등을 핵심 노드로 한다. 음악 평생교육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다루는 단어들과 향후의 개발과 지속 등에 관한 논의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노인 음악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전망’ 주제라 할 수 있다.

군집 D는 ‘학습자’, ‘성인’, ‘피아노’, ‘오케스트라’, ‘전통음악’, ‘교수법’, ‘만족도’, ‘학원’, ‘개선방안’을 핵심 노드로 한다. 상위 노드에 집중하면 피교수자(학습자, 성인, 피아노, 만족도) 관련 내용과 교육 소재(오케스트라, 전통음악)에 관한 내용으로 포괄할 수 있기에 ‘피교수자와 교육 소재’ 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이후 국내 음악 평생교육 연구에서 거론된 주된 담화 주제는 크게 ‘교육 행정’, ‘연구방법론과 심리적 효과’, ‘노인 음악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전망’, ‘피교수자와 교육 소재’로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삶의 질’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평생교육 시장의 확장 속에서 국내 음악 평생교육에 대한 그간의 누적된 연구들의 의미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2000년 첫 연구 이후 20여 년 동안 누적된 관련 논문 약 49편을 선별, 취합하고 그 초록을 원천자료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그 함의 및 추가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내 음악 평생교육 연구의 주요 화두는 단연 ‘노인’ 음악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어 ‘노인’이 TF, TF-IDF 지표 모두에서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다양한 N-gram 자료에 의해서도 그 지위와 양상이 확인된다. 다만 일반적인 성인 범주 이외의 세대를 특정한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인 음악교육에 대한 비중은 곧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노인

을 제외한 다른 성인 세대에 대한 연구는 그만큼 부재하다는 점에서 연구의 다양성 측면에서 향후 연구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음악 평생교육 연구에서 음악 소재에 대해서는 크게 악기와 음악 장르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악기에서는 피아노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보았다. 이외에 노래, 오케스트라(관현악기) 등이 뒤따르고 있으며 악기 이외에 게임 같은 보조 소재도 활용됨을 알 수 있었다. 음악 장르에서는 전통음악과 클래식 음악이 주로 등장하였으며 대중음악의 경우 피아노 교육이나 노래를 통한 교육 현장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단어 등장은 없었다. 교육 방식과 관련해서는 최근 부상한 비대면 방식의 언급도 확인되었으며 개인교습소보다는 다수의 학습자가 참여하는 집단 교육의 형태가 더 많이 다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교육 소재의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실용음악 학계에서의 음악 평생교육 연구가 상대적으로 왕성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가설적 문제의식을 제기하고자 하며 연구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역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대학 부설기관으로서의 평생교육원이 관련 연구에서 가장 비중 있게 언급되었으며, 구체적인 교육 주체에 대해서는 교수자보다 피교수자에 대한 연구(특히 노인)가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보았다. 또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관 역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 치중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넷째, 연구들은 음악 평생교육이 갖는 사회적, 교육학적 의미와 더불어 그 물리적, 심리적 효과들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관련 연구가 가장 주목하는 노인 음악교육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의 측면에서 평생교육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연구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론을 추정할 수 있는 다수의 단어들도 포착되었는데 음악교육 모델의 제시나 각종 정량적 계량화와 관련한 언급이 순위권에 있었다.

여섯째, 각 단어의 연결중심성 값을 토대로 이를 노드의 크기와 연결선의 굵기에 반영하여 시각화한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는 노인과 음악교육의 강력한 중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노드의 구조적 등위성을 중심으로 시각적으로 군집화한 CONCOR 분석을 통해 한국 음악 평생교육 연구에서 거론된 주된 담화 주제가 크게 ‘교육 행정’, ‘연구방법론과 심리적 효과’, ‘노인 음악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전망’, ‘피교수자와 교육 소재’로 수렴됨을 파악하였다.

이상 한국에서의 음악 평생교육 연구의 구조를 살펴본 바 현장에서의 실험이나, 관찰,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분석, 방안 제시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등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회학, 철학, 심리학, 교육학적 차원에서 음악 평생교육의 성격과 의미 규명에 영감을 줄 기저연구라 할 이론적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향후의 문제의식과 과제로 제시한다.

References

- Chang, E. U. (2021). A study of situation for music education program for adult and different class of the adult as art & culture education. *Music Teaching Method Research*, 22(2), 121-154.
- Choi, D. H. (2023). Korea ranks 6th in national power ranking... Equivalent to the G7 in economy, innovation and security. *Maeil-ilbo*. Retrieved February 26, 2024, from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14200>
- Choi, E. S. (2000). Research tasks and prospects of Korean music curriculum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Korean Music Education Society The 2nd Quater Research Seminar*, 1-20.
- Choi, J. H. (2011). Research methodology of music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12, 205-220.
- Drieger, P. (2013). Semantic network analysis as a method for visual text analytic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79, 4-17.
- Freeman, L. C. (2002).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Londres: Routledge*, 1, 238-263.
- Hwang, E. Y. (2020). Analysis on topic modeling and trend of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using text mining(1999~2019).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2(2), 29-47.
- Im, S. R., Paik, S. H., Min, K. H., & Song, Y. Y. (2020). An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of the music-centered convergence educatio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45, 107-126.
- Jung, J. E., & Seog, M. J. (2014). The research trends of music education in Korea by the analysis of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3(1), 165-188.
- Kim, H. J. (2024). Rapid Aging in Korea... Seniors' Life Satisfaction Keeps Dropping. *Segye-ilbo*. Retrieved February 26, 2024, from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224504872?OutUrl=naver>
- Kim, H. M. (2015).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f South Korean music education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Focusing 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4), 49-68.
- Kim, J. H. (2022). Research trend analysis of pre-service music teachers in Korea using text mining.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52, 79-95.

- Kim, M. S., & Lee, J. Y. (2023).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Korea music education by text min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52(2), 1-21.
- Kim, M. S. (2001). The study on the trends of research in JRM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0(1), 1-19.
- Kim, S. H. (2020).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5(1), 21-41.
- Kim, W. J. (2018). A study on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 and the knowledge structure of music education by analyzing keyword network. *Research in Music Pedagogy*, 19(1), 1-30.
- Kondrak, G. (2005). N-gram similarity and distance. In *International symposium on string processing and information retrieval* (pp. 115-126).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 Kwak, J. Y., & Chung, W. K. (2014). Change of piano education market and future value of adult piano students. *Research in Music Pedagogy*, 14, 1-20.
- Kwag, H. G., & Kwag, M. S. (2017).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 of music education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Focusing on key words selected by the author.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1), 1-21.
- Lee, K. S., Han, K. H., & Shon, J. E. (2014). A current status and an ameliorative plan on adult applied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2(1), 105-119.
- Park, J. Y. (2022). Differences in happiness by types of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according to socioeconomic conditions. *Journal of Cultural Industry Studies*, 22(2), 31-39.
- Park, K. B. (2011). An analysis and survey of Korean research on music education: Focusing on the research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since 1980.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9(2), 57-76.
- Seog, M. J. (2004). The alternative approach of music education inquiry in Korea through current research trends and issues in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7, 91-128.
- Shin, H. K. (2013). Trends and issues of qualitative research in music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2(2), 91-117.
- Shin, H. K., & Oh, J. H. (20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of music education in Korea and the US through text network analysis: Focusing on KJRME and JRM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3(3), 185-200.
- Won, Y. S. (2006). A study on the latest tendency in research of Korean music education.

Kukakgyouk, 24, 7-30.

Yoon, I. J., & Bae, E. S. (2009). Changes in leisure activity and effects of economic activity on leisure activity: A comparison of results of the time use survey of 1999 and 2004. *Journal of Leisure Studies*, 7(2), 89-111.